

“청소년도서에서 사회정책적 지원을”

우수 청소년도서의 개발 및 지원 육성방안

劉載天

서강대 교수 · 신문방송학

청소년도서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읽을 도서를 의미한다. 이 연령층은 흔히 정신적 離乳期라 부르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이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접받는 것도 아닌 주변적 인간의 상태에 속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켜주며, 이 세계와 인간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도서의 일차적 기능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청소년도서가 많이 출판되어야 하나,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그같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도서의 대부분은 문학작품이며, 게다가 번역물이다. 또한 그 도서목록이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추천하는 도서목록은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용 '책소식'전문지 나와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84년 6월부터 별도의 기구 '청소년도서 보급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층이 읽어야 할 책을 선정·보급하고 있고, 선정도서의 해설, 목록, 독서지도 등을 소개하는 「이달의 책」을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도서 선정·보급사업은 우수 청소년도서의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구입배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도서 전문출판이 마련돼야 하며, 이미 출판되어 있는 도서 가운데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노력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약 10%가 잡지나 신문에 소개된 책소식이나 서평을 보고서 책을 고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출판계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책소개를 하거나, 직접 그러한 매체를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책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책소식 전문지를 만들어 보낼 것을 제의한다. 방학기간을 이용, 도서관과 협력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청소년 독서교육과 관련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강연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교사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는 일도 구상해볼 수 있다.

출판연구소와 같은 기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도서목

청소년 독서의 활성화를 위해선

책소식 전문지의 활용,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매체의 관심, 문교부와 각급학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 청소년도서의 출판이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술지원금 정책 등을 통해

능력있는 저자를 육성해야 한다.

록을 만들고, 번역이 안된 외국책의 경우 번역출판을 권장하며, 번역된 책 중 잘된 책을 심의, 추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이지만, 그 다음이 읽고 싶은 책을 사거나 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약 30%가 서점에서 직접 책을 사서 읽는다는데, 각 서점들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책을 확보하여 진열대에 꽂아놓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독서지도를 강화하고 도서관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매체의 적극적 역할 기대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독서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반드시 청소년들의 독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문학작품을 방영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의 구매나 독서를 자극한다고 한다. 따라서 언론매체가 청소년들의 독서를 장려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먼저 텔레비전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책소개 코너를 마련하거나, 주부 대상의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저자와의 대화', '나와 환경의 책' 같은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알맞게 변형하여 편성하면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본다. '문화가 산책' 같은 성인용 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



청소년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선 우수 청소년도서의 저술과 출판이 시급히 요청된다.

도서에 대한 출판정보를 소개할 수 있겠다. 새로운 동화 등의 방송, 청소년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읽은 책을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구상해볼 만하다.

라디오의 경우, 디스크 차기 프로그램이나 팜송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프로그램에 독서 코너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감상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내용만을 대상으로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쇄매체는 전파매체와 달리 기록성이 보장되며 독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신문이나 잡지들이 청소년들의 독서를 부추기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신문의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목록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자기네 신문의 광고수익을 높이기 위해 각 출판사로부터 책광고를 받거나 독서감상문 모집만 대대적으로 할 뿐,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잡지들의 경우, 서양의 대중문화 우상들의 스킨들 등으로 지면을 가득 메울 뿐, 청소년도서 대한 정보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여성잡지의 경우도 어린이와 함께 보는 페이지를 마련하기는 하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기사는 없다.

'저술지원금제도'의 운영 바람직

청소년들은 장래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세대이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행동규범을 가져야 하며,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투철

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가 이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도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관심사를 망라하는 좋은 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저자들이 청소년용 도서를 저술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판금고, 문예진흥기금 등에서 청소년도서 저술지원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것은 청소년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조성기관의 구실을 담당할 수도 있다. 우선 출판할 분야의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번역할 사람이나 저자를 선정하여 원고료와 연구비를 지원한다면, 우수 청소년도서의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같은 사업에 민간재단, 예컨대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 등이 참여할 수도 있다. 번역이나 저술에 지원을 받은 도서는 번역자나 저술자가 자유롭게 출판사와 계약하여 인세를 받는다면 의욕도 고취될 것이다.

우수 청소년도서의 출판이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조건,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나 지나친 상업주의적 출판풍토 등을 고려해볼 때, 자유시장의 원리에 방임해둘 수 없다. 따라서 우수 청소년도서의 개발은 다분히 사회정책적 범주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에서 제기했던 몇가지 방안들, 예컨대 저술을 부추기는 지원정책,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분위기의 조성 등이 공공의 이익과 필요라는 차원에서 수립되고 구현되어야 한다.